

11-1-2026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골로새서 3:1-6

말씀제목: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골 3:1-2)

하나님께서서는 고난 받은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까지 그의 혼을 끌어올리셔서 보좌에 앉아계시는 하나님과 오른편에 앉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고란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본 것을 증거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증거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십사 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고후 12:2-4)

그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까지 끌려올라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인지 눈으로 보았을 때 그가 믿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비로운 분이신지 몸소 체험하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엿 것을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차기를 구하노라.”(엡 3:16-19)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엡 3:9-11)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며 하늘에 속한 자들이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대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알게 한 것이며 (내가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엡 3:2-4)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6-27)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들을 알았고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지 못했던 욥에게 하늘들에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악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 고정시켰으며 모퉁잇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느냐?....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네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네게 열렸느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느냐? 네가 땅의 너비를 알았느냐? 만일 그것을 모두 알았다면 선포하라....네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네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네가 플라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응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네가 열두 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욥 38:4-8,16-18,22-23,31-32)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말씀의 통해 알 수 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